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 및 역사왜곡 규탄

성명서

오늘 우리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거듭된 중지 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우리 민족의 정기와 얼이 서려있는 아름다운 섬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끊임없는 망동과 망언을 일삼더니 급기야 소위 『독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한일 국교 정상화 40년간의 우호증진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리는 배신행위이고 일본이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의 한반도 침탈을 위한 선전포고 행위와 같다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평창군의회는 5만 평창군민 모두의 뜻을 담아 일본의 침략적 만행을 규탄하고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과거사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일본의 진실한 반성과 관련대책의 촉구와 함께 우리 정부의 의연한 대응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식민통치에 대한 역사교과서 왜곡, 과거사문제에 대한 망언을 중단하고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준 역사적 사실을 포함한 있는 그대로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공명정대한 역사교과서 검정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독도수호의 결연하고도 명백한 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알리고 일본 독도 침탈에 대한 분명하고도 강력한 조치의 실시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3. .

평창군의회의원일동